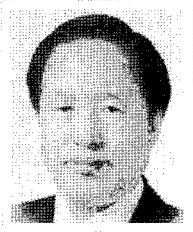


# 한국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한 제언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세계화'라는 도도한 조류(潮流)이고, 이러한 현상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생산의 규모화와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뢰와 통합이라는 두 가지가 반드시 실려 있어야 표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양식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2010년 새해도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대개는 음력설을 기점으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새해 농사를 시작하므로, 농업 · 농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지금 이야기 하더라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일년 내내 분주하게 살던 사람들도 해가 바뀌는 연말연시에는 “세월 참 빨리 가고 있다”고 말한다.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다.

농업인구의 비중이 전 국민의 10% 아래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빨랐고, 농촌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20% 아래로 낮아질 정도로 급속히 달려왔다. 우리들은 자칫 서로 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할 정도로 너무 급속한 변모가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속도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느려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결국은 변화가 늦

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혁신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쫓아가는데 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셈이다.

### **‘조직적인 시스템’ 통해 성과 거둬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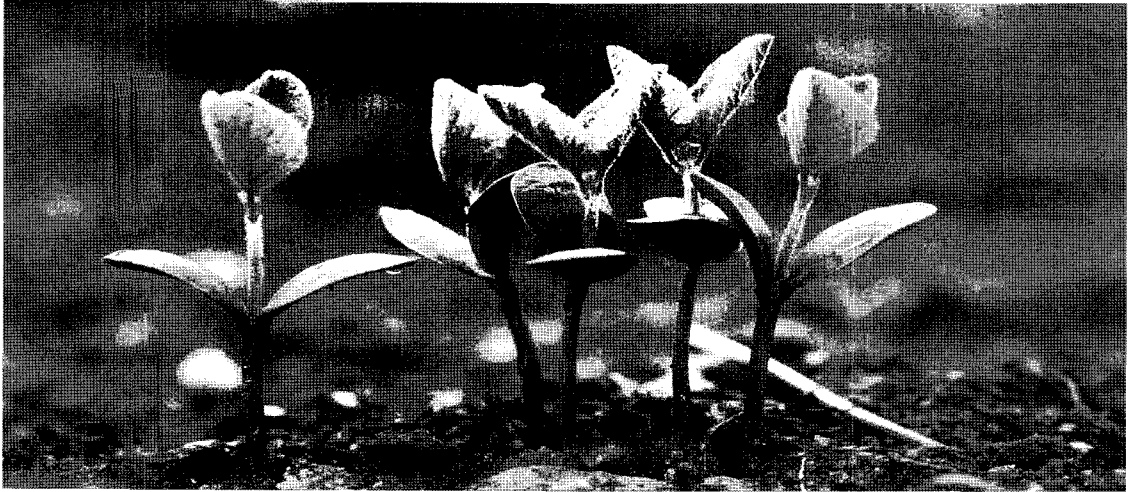
농업·농촌의 발전도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맞춰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산업이 따로 변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공업·상업·의학·문화·예술·사회·정치·경제 등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해 가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만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농업·농촌의 도약이 농업인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만으로 가능한 시대도 지금은 아니다. 정부와 농업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앞서가는 농업·농촌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2010년에는 무엇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세계화’라는 도도한 조류(潮流)이고, 이러한 현상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교통 등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는 것은 이미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진화되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다. 가족을 중심으

로 모듬살이를 시작한 인류는 차츰 대가족→씨족사회→부족사회→왕조국가→근대국가 등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는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거래가 골짜기에서 강가로, 강가에서 바다로, 그리고 바다에서 세계로 확대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세계화’가 바꿀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제 해법은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할 것인가에서 찾아야 한다. 큰물이 흐르는 강에서 사용되는 배는 적은 물이 흐르는 강에서 사용되는 배와 항로가 다르고, 짐을 싣는 양이나 방법 등이 같지 않다. 우리 농업이 내수시장이라는 골짜기나 작은 강에서 세계화라는 큰 강과 바다가 바로 접하게 되어, 커다란 배가 드나들게 되었으니 이를 운용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우리도 큰 배를 가지고 바다로 진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작은 배가 아니면 드나들 수 없는 골짜기나 작은 강들을 장악하여, 더 빠르고 안전하고 비싸지 않는 수집과 분배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잘 절충하고 조화시켜 나가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모두 ‘조직적’이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큰 배를 가지고 큰 바다로 나가려면 그만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실려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생산의 규모화와 조직화가 이



루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또한 작은 배로 크지 않은 시장을 바쁘게 다양한 농식품을 항시 공급할 수 있으려면 여러 생산농가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야 하고, 소비자들도 가능한 한 고정고객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조직적인 시스템을 이뤄내지 못하면 어떤 대책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 ‘선진화·조직화’ 위해 구성원 모두 압심해야

과거에는 자기만 열심히만 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몇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워지고 있으며 성과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요즘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들 중에는 큰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차츰 많아지고 있는 것도 오늘날의 시장이 이러한 ‘조직화(組織化)’가 절실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야 하고, 행동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

을 도모하려는 것을 우리는 ‘선진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조직화는 기본적으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농업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은 혼자서 하면 아주 잘하고 유능하지만 여럿이 하게 하면 잘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우리 농업인을 비롯하여 가공업자 유통업자 식당 및 소비자 국민 모두가 서로 믿는 선진 사회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 외국산이 국산으로, 육우가 한우로 둔갑하고, 묵은 쌀과 햅쌀, 수입쌀과 국산쌀이 섞이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 소비자들의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 왔는데, 지금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 한국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한 제언

조직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분야를 끌어들이고 함께해야 한다. 농사에 있어 씨를 뿌리고 가꾸는 과정에서 기계와 농자재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일하고 또 비용도 덜 들여서 좋은 상품(商品)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잘 만든 물건을 눈에 띄게 포장하고 친절한 사용설명서 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서 남다른 의미를 갖도록 하는 데는 농업 이외의 분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농작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리학 · 화학 · 생리학, 자동제어와 원격제어를 위한 컴퓨터 및 통신기술 등으로부터, 포장에는 디자인 미학 심리학 등, 설명서는 영양학 · 보건학 요리 가공 등, 상품과 관련된 이야기(story)는 역사 문화 예술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쌀이 발효공학과 만나서 술이 되고, 술이 영양학의 도움으로 안주와 음식을 만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시와 음악 등과 함께 문화와 철학과 예술을 결합하여야 할 것이다.

### 내준 시장만큼 '공략기회' 더 많아

세계화라는 큰 조류를 조직화라는 선단(船團)을 통해서 헤쳐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신뢰와 통합이라는 두 가지가 반드시 실려 있어야 표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세계화는 농업생산

이 가락동 시장이나 한국 사람들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제는 세계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요즈음 수출품목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파프리카를 보자. 파프리카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먹지 않았지만 일본 사람들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생산이 확대되기 시작했던 농산물이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이런 저런 어려움이 컸으나 지금은 아주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것이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생산하여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잘 만들고 잘 팔고 잘 벌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앞으로 세계화라는 도도한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큰 시장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거나 기술과 아이디어로 비용은 줄이고 가치는 높이는 농식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농업 · 농촌을 주도하는 농업인들은 물론, 농림수산물업과 관련된 업계와 기관 모두가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힘차게 전진하면 우리의 꿈이 성큼 가까워질 것이다. 세계화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외국농산물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우리농산물도 다른 나라의 낮은 문턱을 공략할 기회가 커진다는 사실을 활용해야 한다. Y